

교육청, '민식이법' 무력화 시키나

광주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민원 접수 논란 유·초교 301곳 중 117곳 오전 8시~오후6시 승·하차 구역 신청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한 주·정차 전면 금지와 과태료 부과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시교육청이 그동안 2년여의 노력을 거쳐 만든 '통학길 어린이 안전법'보다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치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초등학교·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구역' (일명 드롭존) 신청을 받

아 자동차 통행을 양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1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각종 민원이 쏟아지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가 가능한 '승·하차 구역' (일명 드롭존·drop zone)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승·하차 구역'은 스쿨존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해 자동차가 표지판에 적힌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접수 결과 광주지역 유·초교 301곳 중 117곳이 승·하차 구역을 신청했고, 신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구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사실상 낮 시간 내 스쿨존 주정차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법 개정을 무력

화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안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드롭존)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간인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승·하차 구역은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승·하차 구역을 확대·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한 활동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은 승·하차 구역 등 운전자들의 맵질식 민원 해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이다"면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전남대, 공동 교양교과목 운영 협약 학점교류 활성화·지역 상생발전 협력키로

조선대가 전남대와 공동 교양교과목 운영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선대 민영돈 총장과 전남대 정성택 총장을 비롯해 조선대 박현주 기초교육대학장, 전남대 차성현 교육혁신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점교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협약 세부 내용으로는 ▲대학 간 공동 교양교과목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조선대와 전남대는 오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별로 각각 2개의 교양교과목을 개설해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동 개설 교양교과목으로는 ▲웃장 속의 세계시민(전남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위은하 교수, 정경희 강사) ▲토론과 민주지성(전남대 인문학연구원 류도향 교수) ▲공감의 시대와 반려동물(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장은영, 이영란 교수) ▲색채, 문화 그리고 상상력(조선대 미술체육대학 디자인공학과 한지에 교수)이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은 대학 간 장벽 해소 및 폭넓은 교양교과목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교육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교양교과목 공동 운영을 통해 양 대학이 함께 교류·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과도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동 교과목 운영에 좋은 사례이자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충장축제 대형 공연 사전접수 시작

주무대 공연 등 집중 완료자 위주

광주시 동구가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의 대형 공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관람객 사전접수를 시작했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충장축제의 대형 공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전접수를 시작했다.

5·18민주광장 주무대 행사에서는 1000명 규모의 관람객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사전접수를 해야 하는 주무대 행사는 축제 첫날(18일)에 펼쳐지는 개막식 및 축하 콘서트에는 가수 송가인, 박남정, 전영록, 정수라, 박혜신, 진국이, 나영, 그룹 머스티비 등이 초청돼 '추억을 이야기'하는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19일에는 대학가요제 및 강변가요제의 노래와 무대를 재현하는 '대학가요제 리턴즈 경연대회'와

70·80년대 발표된 대중가요 및 팝 음악 배경의 '레트로 댄스 경연대회'를 관람하고 싶은 시민들이라면 예약은 필수다. 20일에 예정된 '힐링 콘서트'에는 가수 최백호, 배일호, 전자현악, 피스트범프(FB), 퓨전국악 울림, 임희숙 등이 추억을 함께 느끼는 공연을 펼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에 진행되는 폐막식 및 콘서트에도 예약이 필요하며 이날은 가수 원미연, 박강성, 요요미, 부활, 진이랑, 양하영, 비보이 '라스트 트리트' 크루, 팬텀싱어의 최용호, 박정훈, 김지원 등이 출연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충장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네이버'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예약가능하다.

5·18민주광장 주무대 공연은 접종 완료자만 관람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COOV 앱 등) ▲접종 확인증(동, 보건소 발급)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 스티커를 현장에서 확인 후 입장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눔 김장'의 계절 1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나눔기' 행사에서 광주시새마을회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남구, 19일 '재활용품 나눔장터'

광주 남구가 생활 속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나눠 쓰고,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남구에 따르면 2021년 재활용 나눔장터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아름다운가게 백운점에서 열린다.

장터에는 남구청 공무원과 주민들이 기부한 재

활용품 2000여점 가량이 판매된다. 의류와 신발, 가방, 집화, 장식품 등을 비롯해 친환경 세계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수익금은 관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조손가정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리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의 훈훈한 마음이 한데 모여

1567점의 물품이 수집됐고, 판매 수익금 100만원과 아름다운가게 백운점에서 기부한 후원금 등을 더해 총 300여만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됐다.

남구 관계자는 "무심코 버리는 물건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며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 활성화 범시민 토론회

시민모임, 17일 DJ센터서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의 생태 가치를 보존하고 그린뉴딜 실현 모델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무등산 세계 지질공원 활성화 시민모임은 오는 17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K-그린 뉴딜,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범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총 3부로 진행되는 토론회 1부에서는 '탄소중립 시대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허민 무등산보호 단체협의회 공동 의장이 기조발제한다. 2부에서는 '무등산 세계지질공원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강미희 서울대 연구 교수가 발표하며 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무등산 생태 보존 아이디어를 나눈다.

시민모임은 오는 20일과 다음 달 4일 현장 캠페인을 통해 세계 지질공원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을 포함해 탐방객 설문 조사를 벌여 환경부와 광주시에 정책 제안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